

익산지역 소조상의 편년에 대한 고찰

진영아*

- I. 머리말
- II. 익산지역 소조상의 양상
 - 1. 현황
 - 2. 제작기법
- III. 익산지역 소조상의 제작시기
 - 1. 불교조상과의 비교
 - 2. 공반유물과의 비교
- IV. 맺음말

I. 머리말

익산은 백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지역 사찰 일부는 백제 멸망 이후에도 운영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문헌에도 백제 멸망 이후의 기록이 남아있어 보덕국과 후백제의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익산의 유적이거나 유물은 삼국시대 백제부터 그 이후시기에 걸쳐 분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와 제석사지(帝釋寺址)에서 출토된 소조상 파편은 대략 7세기 삼국시대 백제로 편년하고 있다.¹⁾

따라서 본고에서는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출토 소조상의 양식과 공반유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소조상의 제작시기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부여지역 소조상과의 비교를 통해 제작시기의 선후관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 1) 양은경, 「百濟 帝釋寺址 출토 塑造像의 분석과 木塔址를 통한 奉安原形 추정」, 『호서고고학』23(호서고고학회, 2010), 이병호, 「백제 사비시기 소조상의 전개과정」, 『東垣學術論文集』14(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13), 최성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을 통해 본 百濟 彌勒寺의 佛像」, 『百濟文化』43(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0);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 『百濟文化』49(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계를 살펴, 익산지역 소조상의 편년을 재고찰하고자 한다.

II. 익산지역 소조상의 양상

삼국시대 백제의 영역이었던 부여와 익산지역에서 출토된 소조상은 모두 7세기 백제 사비기(泗沘期)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륵사나 제석사는 백제 멸망 이후에도 운영되었으므로 출토 유물을 삼국시대로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소조편의 현황과 그 제작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황

1) 미륵사지

미륵사는 『사리봉안기』에 의해 639년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까지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미륵사지 출토〈소조머리편〉은 보살상의 머리로 추정되며, 모양을 확인한 결과 전불(轉佛)의 형태였을 것으로 본다. 그밖에 〈소조나발편〉, 〈소조동물편〉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표 1】

불·보살상과 관련된 〈소조나발편〉은 서쪽 금당지 기단 내부와 사역 북편 남북석렬에서 출토되었고, 서금당지에서 출토된 나발편은 사역 북편에서 출토된 나발보다 크기가 큰 것으로 미루어 다양한 크기의 불교조상(佛敎造像)을 모셨다고 추정할 수 있다. 중원의 금당으로 추정되는 유구에서는 불신(佛身)편 등과 금당추정 유구 서북부 기단외부에서는 많은 벽체편이 출토되었고, 목탑으로 추정되는 유구의 기단 외부에서도 소조편들이 출토되었다. 또한 중원 서회랑지 동변기단외부 소토층에서 부조의 형식으로 제작된 〈소조얼굴편〉, 연못 외적층에서 인왕상의 눈으로 추정되는 파편이 발견되었다. 그밖에 미륵사지에서는 다양한 〈소조동물편〉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2) 미륵사지는 639년에 창건되어 최초 3탑 3금당을 동서로 병치한 3원가람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사역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사역이 북편으로 이동 및 축소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II』, 2013, p.287.).

〈표 1〉 미륵사지 출토 소조상

연번	출토지	유물명	잔존크기(단위:cm)	사진
1	서원 승방지 북변기단 후대건물지의 서변기단 외부	소조동물다리편	세로 4.0 가로 7.5	
2	사역 서북편	소조머리편	높이 8.5 가로: 5.5	
3	사역 북편 건물지 4	소조코편	높이 3.5 가로 6.4 세로 5.0	
4	사역 북편	대형불상 추정 파편 3 점 등	-	
5	사역 북편 남북석렬	소조나발	높이 1.3 지름 1.8	
6	사역 북편 건물지 (남측지역)	소조동물편(추정)	가로 7.0 세로 10.0	
7	사역 남편 동연못 (고려시대 건물지)	소조도깨비편(추정)	가로 4.5 세로 5.6	
8	서금당지, 그 주변	소조나발편	높이 3.5 지름 3.6	
9	동탑지 주변 동편석렬 외부	불신편 외 소조편 (유사한 류가 서금당지, 목 탑지 추정유구, 중원금당지 추정유구에서 다수 발견)		
10	중원 금당지(추정)	채색한 흔적이 있는 소조편 외 다수의 벽체편 출토		
11	중원 서회랑지 서북우 기단내	소조얼굴편	길이 9.5 가로 10.0	
12	연못지	불상 다리편(추정)	길이 7.0 너비 6.0	
13	사역 북편 (조선시대 건물지)	소조눈편	길이 5.0	
			가로 8.0 세로 2.5	


14	사역의 동남쪽 지역 배수로	소조동물편	높이 16.2 가로 8.5	
15	강당터 복편	소조동물편	높이 5.7 가로 11.0	

2) 제석사지

제석사지에 관련된 기록은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남아있으며, 발굴결과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 멸망 이후에도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

제석사지 출토 소조상은 발굴을 통해 폐기장, 목탑지 복편 폐기구덩이, 목탑지 서편 계단지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표 2】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편들은 부여지역과 미륵사지와 달리 극소형으로 보이는 파편이 출토되지 않아 전체적인 상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또한 제석사지 출토 소조상에서는 부여지역과 미륵사지에서 보이지 않았던 신장상, 약귀상 등으로 추정되는 상이 새롭게 보여 부여지역에 비해 제작시기가 비교적 늦을 것으로 생각된다.⁶⁾

〈표 2〉 제석사지 출토 소조상

연번	출토지	유물명	잔존크기(단위:cm)	사진
1	출토지미상	소조의습편		
2	폐기장 (총 346 점 수습)	소조머리편	높이 13.2 가로 6.5 세로 10.0	

3) 『觀世音應驗記』百濟武廣王遷都枳慕蜜地新營精舍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天大雷雨遂災帝釋精舍佛堂七級浮圖乃至廊房一皆燒盡塔下礎石中有種種七寶亦有佛舍利

4)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益山郡,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査報告書』, 1994; 圓光大學校博物館·益山市, 『益山王宮里傳瓦窯址(帝釋寺廢棄場)試掘調査報告書』, 200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 201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I』, 2013.

5) 제석사지 관련 소조상은 부여지역에서 발견되는 보살상, 제자상, 공양인물상은 거의 출토되지 않고 천부상, 약귀상, 불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양은경, 앞의 논문(2010), p.46). 또한 소조상의 골조흔을 통해 부여지역 소조상 보다 전체적인 크기가 커진 것으로 보았다(양은경, 위의 논문(2010), p.49). 다만 제석사지에서는 대형소상은 발견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소형이나 초소형상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이병호, 『백제 불교 사원의 성립과 전개』,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p.286).

6) 양은경, 앞의 논문(2010), p.57 표2 참고.

3		소조머리편	높이 10.5 가로 9.2 세로 4.2	
4		소조입상편	높이 29.4 가로 18.0 세로 8.5	
5		소조신발편	높이 3.8 가로 8.3 세로 4.7	
6		소조손편	가로 13.6	
7		소조악귀편	높이 16.4 가로 13.8 세로 15.5	
8		소조악귀편	높이 8.8 가로 6.7 세로 4.3	
9	목탑지 서편 계단지	소조편	높이 6.0 가로 4.0 세로 3.4	
10	목탑지 북편 폐기구덩이	소조편 3 점 (신발과편 추정 등)	높이 6.8 가로 4.7 세로 3.4	

기록에 따르면 미륵사지의 창건 시점은 639 년이며, 제석사지는 동일한 639 년에 목탑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또한 이 두 사지에서 출토된 소조편들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출토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출토지와 봉안처가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⁸⁾ 더 나아가 이 두 사찰의 소조상 출토 양상이 다르다는 점은 봉안처 혹은 봉안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彌勒寺址 出土 金製舍利奉安記』…我百濟王后佐平沙毛積德女種善因於曠劫受勝報於今生撫育萬民棟梁三寶故能謹捨淨財造立伽藍以己亥年正月廿九日奉迎舍利…, 본고 각주3 참고.

8) 지금까지 대부분의 소조상은 목탑 내부에 안치하는 塔本塑像으로 제작되었으나 점차 상의 규모가 커져 금당의 예배상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최성은, 앞의 논문(2013), p.10 각주14 참고). 그러나 상의 크기가 커진 만큼 건물의 크기가 커졌다면 봉안처에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2. 제작기법

소조상은 기본적으로 성형, 소성 단계를 거친 후 채색 혹은 시유의 과정이 행해졌던 것으로 본다. 기존의 견해 가운데 소조상의 제작에 있어 소성의 유무가 제작기법의 차이로 알려져 있었으나 건조만 시켰을 경우 방수효과가 떨어지므로 소성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조상과 같은 재질인 토기에도 연질·경질과 상관없이 소성을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조상 제작에 소성과정은 필수일 것으로 생각한다.⁹⁾

익산지역과 부여지역 소조상의 기본적인 제작방식은 유사하나 제작기법상 차이는 시유의 유무인데, 익산지역 소조상에서는 유약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¹⁰⁾ 또한 익산 제석사지 소조상은 식물가지를 다발로 묶어 골조로 삼았는데, 그 크기가 부여지역 소조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¹¹⁾ 이는 익산지역 소조상을 제작했을 때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수준이 부여지역 소조상을 제작했을 때와는 다르며,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전(塼)의 형식으로 제작한 소조상이 존재하는데 이런 형식의 소조상은 삼국시대 신라의 영역이었던 경주와 일본 하쿠오(白鳳)기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²⁾

따라서 제작방식에 있어서 익산지역 소조상은 부여지역 소조상보다 기술의 발달로 더 큰 규모의 상을 제작할 수 있었고, 그만큼 두 지역 간 소조상의 제작시기 또한 다르다고 생각한다.¹³⁾ 특히 제석사지 소조상은 규모가 크면서 뒷면까지 의습표현이 되어있는 상이 있어, 독립된 상의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부여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익산지역 소조상은 부여지역보다 편년이 후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의습과편의 정도와 색 같이 제석사지 폐기장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두 사찰의 소조상 제작시기는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¹⁴⁾ 즉, 이전보다 발달된 제작기법을 통해 익산지역 소조상의 제작은 부여지역과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익산지역 두 사찰의 소조상은 제작시기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9) 소조상의 제작에 있어 성형 이후에 소성식과 건조식으로 나뉜다. 제석사지 소조상의 경우 자연적인 건조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견해(양은경, 앞의 논문(2010), p.50)와 소성식과 건조식 모두 제작된 것으로 본 견해(최성은, 앞의 논문(2013), P.33)가 있다.

10) 양은경, 앞의 논문(2010), p.47 표1 참고.

11) 양은경, 위의 논문(2010), pp.48~49.

12) 전의 형식으로 제작된 파편들은 석장사지, 사천왕사지 등에서 발견되었다(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박물관,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특별전 來如哀反多羅』, 2006, pp.31~51).

13) 익산지역 소조상은 고차원적인 다중구조의 기법이 사용되어 규모가 큰 상이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최성은, 위의 논문(2013), pp.10~13.).

14) 이병호, 앞의 책(2014), p.289.

Ⅲ. 익산지역 소조상의 제작시기

익산지역 소조상은 부여지역 소조상과 비교하면 제작기법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크기, 도상의 차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부여지역 내에서도 소조상의 제작시기에 있어 상대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차가 있는 익산지역의 소조상 제작은 좀 더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¹⁵⁾ 특히 익산지역 사찰은 백제멸망 이후에도 운영되었으므로, 소조상의 양식검토는 제작시기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불교조상과의 비교

소조상은 재질의 특성상 파편으로 발견되므로 양식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 발견된 〈소조머리편〉 일부 조각의 경우는 어느 정도 양식 추정이 가능하다.¹⁶⁾(도 1)

도1. 소조상의 발제선 표현



미륵사지 출토 〈소조머리편〉



제석사지 출토 〈소조머리편〉

위의 두 〈소조머리편〉은 이마와 모발의 경계인 발제선(髮際線)이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삼국시대의 불교조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부여지역에

15) 이병호, 앞의 논문(2007), p.87, 최성은, 앞의 논문(2013), p.11.

16) 미륵사지 출토 소조머리편의 경우 통일신라시대로 추정하기도 하였다(이병호, 앞의 책(2014), p.298, 각주 83참고).

서 출토된 〈소조머리편〉의 발제선도 구획표현 없이 간략하게만 표현되었다.¹⁷⁾(도 2)

도2. 부여지역 〈소조머리편〉 부분



부여 정림사지 출토 높이 10.6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여 정림사지 출토 높이 6.6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높이 4.8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여 서북사지 출토 높이 5.6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여 구교리사지 출토 높이 6.0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여 정림사지, 능산리사지, 부소산 서북사지, 구교리사지 출토 〈소조머리편〉 역시 발제선이 직선으로 간략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여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다른 재질의 백제 불교조상인

도3. 백제 불교조상의 발제선 부분



금동보살입상
 부여 군수리사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입상
 부여 현북리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부여 군수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현북리 출토 〈금동보살입상〉 등을 보아도 부여지역 소조상처럼 발제선이 간단하게 표현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도 3)

그밖에 삼국시대 고구려나 신라로 알려진 불교조상의 발제선도 단순하게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삼국시대로 편년되는 불교조상의 발제선은 구획 없이 간략화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익산지역 소조상에 표현된 구획된 발제선은 특정 시대의 양식을 나타내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익산지역 〈소조머리편〉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한 발제선의 모습은 8세기 이후의 불교조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익산지역 소조상 편년 파악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719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상〉과 8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석굴암 내부의 몇몇 불교조상을 살펴보면, 이들 모두 머리의 발제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되어 있음

17) 진영아, 「백제 사비기 소조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p.52.

을 알 수 있다.(도 4)

익산 미륵사지 출토 〈소조머리편〉은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머리 부분과 익산 제석사지 출토 〈소조머리편〉은 석굴암내 불교조상과 유사한 모습이다. 즉, 기존에 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익산지역 소조상이 인근 지역의 7세기 소조상에 비해서 먼 거리에 위치한 8세기의 불교조상과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점은 제작시기가 부여지역과 다름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익산 미륵사지 〈소조머리편〉의 보관(寶冠)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도 5) 보살이 쓰고 있는 보관으로 일부 파손되었으나, 관의 중앙에는 장식이 표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관의 테두리 상부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어자문(魚子紋)을 시문한 방식으로 보았으나 어자문 혹은 연주문(連珠文)이라 하기에는 주변에 표현된 문양이 구슬모양을 감싸는 것처럼 보인다.¹⁸⁾ 또한, 삼국시대 백제 보살상의 보관에서는 미륵사지 〈소조머리편〉의 보관에 나타난 것 같은 어자문 혹은 연주문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도 6) 즉, 미륵사지 출토 〈소조머리편〉과 유사한 문양이 표현되는 보관은 백제 사비기에 제작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4. 발제선이 나타나는 불교조상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석굴암 내 문수보살

도5. 미륵사지 〈소조머리편〉 보관부분



도6. 백제 보살상의 보관 부분



〈금동관음보살입상〉

공주 의당면 출토

국립 공주박물관 소장(공주609)

국보247호



〈금동관음보살입상〉

부여 규암면 출토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M335-1)

국보 293호



〈금동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9977)

18) 최성은, 앞의 논문(2010), p.126.

도7. 가와라테라 소조편 확대사진



(출처: 최성은, 앞의 논문(2013), p.27 <사진 40>)

도8. 제석사지 <소조입상>



기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옷주름의 표현이 도식화 된 것으로 보인다. 하의 역시 뚜렷하며 단순하게 표현된 것을 보아 어느 정도 도식화가 진행된 상황으로 판단된다.

<태안 마애삼존불>, <서산 마애삼존불>을 포함한 일반적인 백제 불교조상의 대의는 U자형으로 내려오거나 대칭성을 보이고 있어 제석사지 <소조입상>과는 차이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제석사지 출토 <소조입상>처럼 옷자락이 사선으로 올라가는 우견편단으로 보이는 착의법(着衣法)은 경주지역에서 다수 발견된다.²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 영주 속수사지 출토 <금동불입상>, 석굴암 내 <십대제자입상>에서 익산 제석사지 출토 소조입상과 유

한편 기존연구에서는 미륵사지 <소조머리편>의 보관부분의 장식을 일본 가와라테라(川原寺) 유적 출토 <소조몸체편> 등 일본 불교조상과 비교하여 편년을 추정한 바도 있다.¹⁹⁾(도 7) 그러나 일본 가와라테라 출토 <소조몸체편>에는 연주문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미륵사지 <소조머리편>의 문양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즉, 익산 미륵사지와 일본 가와라테라 소조상에 나타난 문양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 보살상의 보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익산 미륵사지 소조상은 부여지역과 제작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석사지에서 발견된 <소조입상>을 살펴보고자 한다.(도 8) 이 상으로 제석사지 <소조입상>의 전체적인 양식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편년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 불교조상 특징 중 하나는 옷주름이 좌우대칭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소조입상>은 사선으로 옷자락이 올라가는 모양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우견편단의 복식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상의는 왼쪽 손목으로 옷자락을 넘

19) 최성은, 위의 논문(2010), p.126; 최성은, 앞의 논문(2013), p.28; 그밖에 일본 가와라테라 유적과 익산 제석사지 유적을 비교하기도 하였다(양은경, 앞의 논문(2010), pp.61~62, 이병호, 앞의 책(2014), p.286 각주 77 참고).

20) 소형 우견편단 불입상이 발견된 지역이 경상도 일대이기 때문에 우견편단 불입상은 신라 특유의 불상형식으로 여겼다. 이러한 신라지역 특유의 우견편단 불입상은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20여구의 한국 우견편단 불입상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강희정, 앞의 논문(2016), p.203).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들어가면 지물의 표현은 사라지지만, 우견편단 대의 형식 자체는 지속된다(차윤정, 『황룡사지 출토 불교조각』, 『신라사학보』23(신라사학회, 2011), p.450).

사한 우견편단의 착의법을 취하고 있다.(도 9) 즉, 익산 제석사지 소조상의 제작시점이 기존 의견보다는 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9. 경주지역 불교 조상 부분



〈금동불입상〉
황룡사지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황룡3)



〈금동불입상〉
속수사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648)



석굴암 십대제자입상

또한 익산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에는 눈알을 따로 만들어 박아 넣은 것 같은 기법으로 추정되는 편들이 있으며 이를 일본 가와라테라 유적의 소조상과 거의 일치한다고도 보았다.²¹⁾(도 10) 다만 실제로 불교조상에 눈이 감입되는 형식은 중국에서는 요대(遼代)에 시작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제석사지 소조상도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기 혹은 그 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²²⁾

지금까지 소조상의 양식을 살펴본 결과 익산지역 소조상은 부여지역 소조상과는 시기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부여지역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이 익산지역에서 나타나며 이는 새로운 문화요소가 유입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는 백제 멸망 이후에도 운영되었다는 점은 소조상의 제작시기가 반드시 삼국시대에만 한정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²³⁾

도10. 제석사지 소조상 부분



21) 최성은, 앞의 논문(2013), pp.27~28.

22)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의 불교조각 연구」, 『불교미술사학』16(불교미술사학회, 2013), pp.90~91.

23) 미륵사지 발굴당시에는 소조상들의 편년이 통일신라 후반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國立

특히 제석사지 소조상은 7세기 소조상의 기존자료로 보았다.²⁴⁾ 그러나 두 사찰에서 출토된 〈소조머리편〉의 발제선 표현과 보관에 표현된 문양, 경주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우견편단의 등장, 눈을 감입한 듯한 제작방식 등을 통해 소조상의 양식을 분석해본 결과 익산지역 소조상의 편년은 기존 연구결과였던 7세기보다는 늦게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공반유물과의 비교

소조상과 함께 출토되는 유물도 소조상 편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조상과 기와의 제작은 공통점이 많은데,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는 부여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의 기와류가 발견된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녹유연목와〉와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 출토되는 당초무늬가 표현된 암막새가 바로 그 예이다.

도11. 〈녹유연목와〉 정면과 측면



익산 미륵사지 출토 / 지름 15.3cm /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먼저 미륵사지 〈녹유연목와〉를 보면 녹유가 고르게 시유되어있고, 연목와의 드림새 측면에 삼각거치문(三角鋸齒文)과 연주문이 둘러져 있다.(도 11) 하지만 부여지역에서는 연목와에 녹유가 시유된 것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각거치문 혹은 연주문이 드림새 측면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²⁵⁾

특히 부여지역에서는 와당의 경우에도 와범(瓦範)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부여지역에는 문양이 없는 와범을 사용했기 때문에 드림새 부분에 문양표현이 없다.²⁶⁾ 즉, 익산지역과 비교했을 때 드림새 부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와제작에 있어 외범의 사용은 7세기 후반 이후 신라나 일본의 고대사원에서 종종 발견되는

夫餘文化財研究所, 앞의 책(1996), p.117).

24) 이병호, 앞의 책(2014), p.294.

25) 미륵사지 출토 녹유연목와는 백제와 통일신라 층위에서 중국 청자와 백제와 함께 다량 발굴되었다. 다만 출토된 중국 청자와 백자는 그 연대가 대체로 9세기경이다(김영원, 「百濟時代 中國陶磁의 輸入과 倣製」, 『백제문화』2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8), p.78, 각주 64.). 즉, 미륵사지 출토 녹유연목와의 편년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6) 이병호, 「7세기대 백제 기와의 전개 양상과 특징」, 『백제문화』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4), p.292.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삼각거치문과 연주문이 나타나는 연목와는 부여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미륵사지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양 이외에 녹유의 사용을 통해서도 익산지역과 부여지역의 유물을 비교해 보면 두 지역 간 녹유시유의 수준차이를 알 수 있다. 유약을 사용한 부여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그릇받침(器臺)>과 정림사지 출토 <소조머리편>을 보면 유약을 고르고 정밀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확인할 수 있다.(도 12)

도12. 부여지역 시유흔적이 있는 유물



그릇받침
부여 왕흥사 서편대지
높이 26.0cm

소조머리편
부여 정림사지 출토
높이 10.6cm

왕흥사지의 그릇받침에서는 유약이 얼룩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림사지 출토 <소조머리편>에서는 안면부분에 유약이 사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정하게 시유되지 못한 상태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약의 사용은 부여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륵사지 유물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시기적 차이가 존재했으리라 생각된다. 중국에서도 <녹유와당>은 북위시대부터 제작되었지만 당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제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²⁸⁾ 이러한 점을 미루어 익산 미륵사지 <녹유연목와>처럼 높은 수준의 녹유시유기술과 드림새 측면 부분에 삼각거치문과 연주문이 있었다는 점은 부여지역 유물의 제작시기와는 시기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²⁹⁾

다음으로는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당초무늬가 표현된 암막새를 살펴보고자 한다.(도 13)

27) 이병호, 위의 글(2014), p.292, 각주18 참고.

28) 양은경은 북위 낙양, 동위, 북제대의 녹유기와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당나라에 접어들면서부터 녹유기와와 수량과 종류가 많아진다고 하였다(양은경, 「북위 불교사원지 출토 녹유기와에 대한 연구, 『선사와 고대』51(한국고대학회, 2017)).

29) 더욱이 백제에서는 자기(瓷器)생산 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유약의 사용 역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정유년에 창왕을 다시 만나다 백제 왕흥사』, 2017, p.58).

도13. 당초무늬가 표현된 암막새



당초무늬 암막새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길이 29.0cm



인동당초무늬 암막새
익산 제석사지 출토
길이 31.5cm

익산지역에서는 정교한 문양이 표현된 수준 높은 암막새가 제작되는 반면에 부여지역에서는 암막새의 제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³⁰⁾ 부여지역에서는 군수리사지 출토 <누른무늬 암막새>가 대표적인 예로 부여지역 암막새는 수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문양의 표현 수준이 익산지역보다는 떨어진다.(도 14) 즉, 익산지역 사찰에서 출토된 암막새가 부여지역보다 제작방식에 있어 발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제석사지에서는 암막새가 소조상과 함께 발견된 것이 아니라 금당지 서편 기단 바깥의 와적층에서 백제 유물과 함께 출토되어 삼국시대 백제로 편년되고 있다.³¹⁾ 그러나 제석사지 암막새의 경우 시굴조사 당시 수습된 유물과 출토된 것이 있어 발굴 층위에 있어 백제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고 하더라도 삼국시대 백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³²⁾ 그밖에 익산 제석사지 목탑지의 경우에는 부여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크고, 목탑지의 삼중기단은 미륵사지 혹은 부여지역을 비롯한 백제 사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방식이며, 오히려 경주 황룡사지 목탑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³³⁾

도14. 누른무늬 암막새



부여 군수리사지 출토
너비 15.0cm /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30) 제석사지 금당지 주변에서는 백제시대 이외에도 통일신라로 편년되는 인동당초무늬기와가 발견되었으나 목탑지 주변에서는 백제이후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는다(양은경, 앞의 논문(2010), p.61).

31) 김낙중, 「백제 고고학 연구에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유물의 의미」, 『백제문화』.57(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7), p.145.

3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益山郡,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査報告書』, 1994, p.18.

33) 김혜정, 「百濟 泗泚期 寺刹 基壇築造工程과 位階에 관한 研究」, 『한국상고사학보』70(한국상고사학회, 2010), pp.155~157, <표6>참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황룡사지 출토 유물자료집 유물로 본 신라

위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수준 높은 제작방식과 고차원 문양의 기와류는 부여지역이 아닌 익산지역에서 제작된다. 이는 부여지역과는 달리 익산지역에서는 좀 더 발달된 기와류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인집단이 존재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즉, 익산지역에 신문화가 유입되었고 이는 소조상 뿐만 아니라 기와류를 제작할 때에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국이 통합되는 시기를 즈음하여 경주지역의 조와기법(造瓦技法)이 백제지역으로 유입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익산지역의 다양한 출토품들의 제작시기는 7세기보다는 늦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³⁴⁾ 더욱이 익산지역은 백제 멸망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기록과 고려시대의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두 유적의 소조상의 제작은 기존의 의견보다 늦춰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³⁵⁾

IV. 맺음말

지금까지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출토 소조상은 백제 사비기인 7세기로 편년되어왔다. 익산지역 소조상에 대한 연구는 사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유물 자체의 양식이나 특징, 제작기법에 따른 편년 검토를 다시 진행하였다. 다만 미륵사지와 제석사지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백제 멸망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된 흔적이 있어 발견되는 유물의 편년은 백제 이후로도 편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식적인 면에서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소조머리편>의 발제선을 통해 삼국시대의 불교조상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719년으로 편년되는 <감산사 미륵보살상>이나 8세기 중반의 석굴암 내 불교조상과 비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석사지 출토 <소조입상>과 같은 우견편단의 착의법을 미루어 기존의 7세기보다는 늦게 편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편 가운데 눈이 감입된 것 같은 형태로 보이는 상이 존재하여 통일신라시대 혹은 그 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 소조상 뿐만 아니라 두 사찰의 일부 기와류를 통해 전반적인 양식이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늦춰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즉, 익산지역 소조상의 제작시기가 부여지역 출토 소조상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황룡사』, 2013, p.329.

34) 최영희, 「황룡사와 미륵사의 기와사용 방식에 대한 비교검토」,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14(한국기와학회, 2017), P.8.

35)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 文武王 10年條,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 神文王 4年條, 『高麗史』卷57 地理 2 金馬郡條.

주제어(Key Words)

부여(Buyeo), 익산(Iksan), 소조상(Clay Statues), 발제선(Hair Line) 양식(Style)
제석사지(Jesoek Temple site) 미륵사지(Mireuk Temple site)

〈참고문헌〉

단행본

-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2009.
이병호, 『백제 불교 사원의 성립과 전개』,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김리나, 『한국고대 불교조각사 연구』(신수판), (주)일조각, 2015.

도록 및 보고서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彌勒寺址:發掘調査中間略報告』, 198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彌勒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9.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益山郡,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査報告書』, 1994.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II』, 1996.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II (도판편)』, 1996.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박물관,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특별전 來如哀反多羅』, 2006.
圓光大學校博物館·益山市, 『益山王宮里傳瓦窯址(帝釋寺廢棄場)試掘調査報告書』, 2006.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가람에 담긴 불교문화』, 2010.
국립부여박물관, 『百濟瓦博: 기와에 담긴 700년의 숨결』, 20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扶餘 定林寺址』, 201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 201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 황룡사 출토 유물자료집』, 201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I』, 2013.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2014.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정림사와 북위 영녕사』, 2015.
국립부여박물관, 『夫餘 定林寺址』, 2015.
국립중앙박물관, 『고대불교조각대전』, 20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백제) 왕흥사: 정유년에 창왕을 다시 만나다』, 2017.

학술논문

- 강희정, 「7세기 偏袒右肩 佛立像의 起源과 전개」, 『신라사학보』36, 신라사학회, 2016.

- 김낙중, 「백제 고고학 연구에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유물의 의미」, 『백제문화』5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7.
- 김영원, 「百濟時代 中國陶磁의 輸入과 倣製」, 『백제문화』2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84.
- 김정기, 「彌勒寺塔과 定林寺塔」, 『미술사학연구』164, 한국미술사학회, 1984.
- 김정현, 「익산 제석사지 창건에 관한 연구」, 『야외고고학』28,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7.
- 김혜정, 「百濟 泗泚期 寺刹 基壇築造工程과 位階에 관한 研究」, 『한국상고사학보』70, 한국상고사학회, 2010.
- 양은경, 「百濟 帝釋寺址 출토 塑造像의 분석과 木塔址를 통한 奉安原形추정」, 『호서고고학』23, 호서고고학회, 2010.
- _____, 「익산지역 백제 불교사원지의 특성과 불교유물을 통한 익산의 위상-발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백제문화』5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5.
- _____, 「북위 불교사원지 출토 녹유기와에 대한 연구」, 『선사와 고대』51, 한국고대학회, 2017.
- 양종현, 「신라기와의 지방 확산에 대한 검토」, 『문화재』4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의 불교 조각 연구」, 『불교미술사학』16, 불교미술사학회, 2013.
- 이병호, 「扶餘定林寺址出土 塑造像의 製作技法과 奉安場所」, 『美術資料』72·73, 국립중앙박물관, 2005.
- _____, 「扶餘定林寺址出土 塑造像의 製作時期와 系統」, 『美術資料』74, 국립중앙박물관, 2006.
- _____, 「扶餘舊衙里出土 塑造像과 그 遺跡의 性格」, 『백제문화』3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7.
- _____, 「백제 사비시기 소조상의 전개과정」, 『東垣學術論文集』14, 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13.
- _____, 「7세기대 백제 기와의 전개 양상과 특징」, 『백제문화』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4.
- _____, 「중국 남북조시대의 소조상과 부여 정립사지」, 『역사문화연구』6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8.
- 정자영, 「부여 정립사지 가람배치와 편년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76, 한국상고사학회, 2012.
- 조원창, 「百濟 泗泚期 木塔 築造技術의 對外傳播」, 『선사와 고대』55, 한국고대학회, 2018.
- 진정환, 「후백제 불교 조각의 대외교섭」, 『백제연구』6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5.
- _____, 「百濟와 新羅의 國家的 美術交流」, 『신라사학보』42, 신라사학회, 2018.
- 차윤정, 「황룡사지 출토 불교 조각」, 『신라사학보』23, 신라사학회, 2011.v
- 최영희, 「황룡사와 미륵사의 기와사용 방식에 대한 비교검토」,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14, 한국기와학회, 2017.
- 최성은, 「동아시아 불교 조각을 통해 본 百濟 彌勒寺의 佛像」, 『百濟文化』4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0.
- _____,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百濟文化』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학위논문

- 진영아, 「백제 사비기 소조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익산지역 소조상의 편년에 대한 고찰

진영아

익산지역에서 발견된 소조상은 부여의 소조상과 다른 양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사비기인 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이는 유물의 양식보다는 사료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익산은 지리적으로 백제의 영역에 속했지만, 백제멸망이후에도 운영되었다. 즉, 익산지역 소조상은 부여의 것과 스타일이 비슷할 지라도 부여의 것보다 늦게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장에서는 익산지역 소조상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소조상은 다양한 곳에서 출토되나 두 사찰의 출토양상이 다르므로, 두 사찰 소조상의 봉안방식 혹은 봉안처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익산지역 소조상의 제작기법은 부여지역 소조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작시기가 달랐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장에서는 소조상의 양식과 공반유물을 통해 편년추정을 하였다. 소조상은 재질의 특성상 완형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소조상은 그 시기의 양식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의 <소조머리편>과 제석사지 출토 <소조입상>이 바로 그 예이다. 두 사찰의 <소조머리편>의 발제선과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입상>의 의습표현을 통해 익산지역 소조상의 제작시기가 기존 7세기보다는 늦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두 사찰에서 출토된 당초무늬가 표현된 암막새와 미륵사지 출토 <녹유연목와>를 통해 소조상의 편년이 기존 7세기보다는 후행하였다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Consideration over the Chronicle of Clay Statues in Iksan

Chin Young Ah

(Cultural Heritage Connoisseur)

Clay statues, found in Iksan, have been considered to be made in the 7th century although it shows different styles of those found in Buyeo. This might be because many researches were conducted in the basis of historical documentation that does not fully reflect a categorization or grouping of an artifact's styles or patterns. Although Iksan is geopolitically included in the boundary of Baekje, it is independently managed after the collapse of Baekje. This suggests that even though similar styles of clay statues have been found in Iksan, they are likely to be made relatively later than in Buyeo

In Chapter 2, the present condition of clay statues in Iksan were studied. Clay statues in Iksan Mireuk Temple site and Jesoek Temple site are excavated in various places, but the two Buddhist temples show different aspects of excavation. This implies that these two types of statues have different enshrinement methods and enshrinement places. Additionally, the production methods of clay statues in Iksan are different from those in Buyeo.

In the next chapter, chronological estimation is conducted through researching the style of clay statues and associated relics. Due to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clay statues are not found intact. However, some clay statue pieces in the Iksan Mireuk Temple site and Jesoek Temple site provide clues to estimate the production style of that period.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Head Fragment of Clay Statues from the Iksan Mireuk Temple Site and Jesoek Temple Site, and the Standing Statue from the Jesoek Temple Site. The style of Hair line of Statue Fragment in two Buddhist temples and the style of wrinkles in a dress of statue in Jesoek Temple Site provide possibilities that statues in Iksan were made after the 7th century. And Roof-end Tile with Rinceau Design and Green-glazed Rafter-end Tile in these two temples also suggest that statues can be made after the 7th century.

